

# 천일염 장기비축 염원 풀었다

### 신안군, 비축용 균유지·염전 운영자금 저리 지원키로

### 출하량 조절·품질 고급화 등 생산자 소득향상 청신호

신안지역 천일염 생산자의 오랜 숙원사업인 장기비축을 통한 자연탈수와 출하시기 조절 등의 길이 열리면서 소득향상에 청신호가 켜졌다.

15일 신안군에 따르면 신안군과 농협목포신안시군지부, 신안천일염생산자연합회는 최근 신안군청에서 천일염 보관능력 향상과 저리의 염전운영자금 용자에 대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은 신안군의 경우 천일염의 자연탈수에 따른 고품질화를 위해 장기 보관할 수 있도록 읍면의 균유지를

아적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농협시군지부는 kg당 400원 기준으로 아적장에 적치된 천일염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운영자금을 1인당 최고 1억5000만원, 총 150억원을 우선 융자한다는 내용이다.

신안군은 이번 협약으로 450억원 규모, 11만2500t의 천일염이 읍면 아적장에 적치돼 고품질화, 출하량 조절, 생산자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 등 일석산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안에선 1년에 1700억원의 천일염이 생산 유통되고 있다. 신안군은 천일염 비축사업이 성공할 경우 비축대상을 마늘과 양파 등 타 작물로도 확산할 방침이다.

신안지역 천일염 생산자는 염수를 뺀 고품질화와 김장철을 겨냥한 고가의 전략이 요구됐지만 자본력이 없어 여름철 흉수 출하 등의 부작용을 자초했다.

천일염 산지가격은 지난해 6월 kg당 310원 하던 것이 올해 6월에는 280원으로 하락하는 등 매년 가격 변동폭이 크다.

박우량 군수는 “자연탈수에 따른 천일염의 고품질화로 어가 소득증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여름별 멸치 말리는 풍경

15일 완도군 신지면 바닷가에서 한 아낙네가 갯 잡아온 멸치를 말리고 있다. 말린 멸치는 완도수협 위판장에서 매일 위판하며 최상품이 1상자(1.85kg)에 3만4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완도군 제공>

# 위용 드러내는 ‘진도 타워’ 군내면 일대 내달 완공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 승전지인 울돌목에 연중 볼 수 있는 진도 타워(조감도)가 모습을 드러냈다.

다음달 공사가 끝나면 서남해안의

대표 랜드마크로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진도군에 따르면 진도 타워는 110억원을 들여 군내면 녹진리 일대



1만1048㎡에 승전광장과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들어선다.

진도 타워에는 최고 높이 60m 규모의 전망대, 명량대첩 체력관, 레스토랑 및 야간 경관 조명 등이 설치된다.

전망대 전면에는 강화유리를 설치, 물살이 세고 소용돌이치는 울돌목과 대한민국 최초 쌍둥이 사자교인 진도대교의 장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타워가 완공되면 울돌목 명량대첩지, 감강술래터, 벽파진 등 불멸의 호국 충혼이 서린 이순신 관련 유적지와 진도대교, 울돌목 해양에너지 공원 등 기존 관광 자원을 연계한 새로운 관광테마 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진도=박희영기자 hypark@

# 목포·완도 내달 3일 최대 혼잡

### 목포항만청, 피서객 52만명 예상...전년보다 5% ↑

목포와 완도항이 다음 달 첫 주 서남해 피서지를 찾는 관광객들로 최대 혼잡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은 올 여름 휴가철을 맞아 목포(33만명)와 완도(19만명)를 이용할 피서객이 52만 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5%가 증가한 수위로 차량은 13만여대(목포 7만대, 완도 6만대)로 예상된다.

피서객은 내달 첫 주 토요일인 3일 5만1000여대의 차량이 섬을 오갈 것으로 전망돼 가장 혼잡할 것으로 보인다.

목포항만청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하계휴가 특별수송 기간으로 정하고 피서객의 원활하고 안전

한 수송을 위해 ‘휴가철 연안여객선 특별수송 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이 기간 서·남해안 지역에 여객선 7척을 추가 투입해 총 34개 항로에 67척을 운항한다.

운항횟수는 특별수송 기간 중 평상시보다 1260회 늘어난 8250여회(편도기준)를 운항할 계획이다.

또 비상근무조를 편성·운영해 여객선 이용불편 사항들을 신속히 처리하는 등 피서객들의 편안한 휴가를 도울 예정이다.

박성복 선원해사안전과장은 “단거리 항로는 수시로 증회운항을 실시하고, 목포항 여객선터미널에 이용객이 폭주할 경우에는 북항과 송공항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 농작물, 적외선 경보기로 지킨다

### 해남경찰, 관내 보관창고에 70개 설치

농·특산물만을 노리는 절도범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해남경찰서 한 파출소가 관내 농가 창고 절도를 막기 위해 적외선경보기를 설치하고 있다.

15일 해남경찰서 송지파출소에 따르면 최근 지역 내 농·특산물 보관창고에 적외선경보기 70개를 설치했다.

경찰의 경보기 설치에 양파와 마늘 등 농·특산물의 아적장소를 파악, 심야시간대 집중 순찰을 펼치고 동시에 비교적 보안이 허술한 비닐하우스 등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적외선경보기는 외부인이 침입할 경우 곧바로 강력한 사이렌음을 발신하여 농작물 손상을 방지하고, 농작물과 이웃에 위급사항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설치예산은 사업의

당위성을 이해한 지역 농협의 협조로 확보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상춘 송지파출소장은 “최근 들어 지역 내 절도 발생률이 지난해 대비 크게 감소했다”며 “지역 주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범죄 예방책을 고안·시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해남경찰은 마늘과 양파 등 농산물 수확철을 맞아 예약순찰제도 실시하고 있다.

예약순찰제는 마을 공동창고 또는 개인별 창고에 저장하는 마늘 등의 농산물 절도예방을 위한 제도로 주민이 요청한 시간대 경찰관이 해당 지역을 찾아 집중순찰을 펼치는 시스템이다.

/해남=박희석기자 dia@kwangju.co.kr

## 전북

## 단신

# 정읍 영파 광역매립장 제2 야구장 들어섰다

정읍시 영파동 광역매립장 체육공원 부지 내에 제2야구장이 들어섰다.

시는 15일 “야구장이 적어 체육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야구동호인들의 취미활동을 도모하고 사회인 야구의 저변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비와 지방비 총 3억원을 들여 야구장 1개소를 추가로 조성했다”고 밝혔다. <사진>

지난 14일 준공식을 가진 제2야구장은 8400㎡ 규모로 100여명 수용 규모의 비가림 관람석과 탁아실 2개 등을 갖췄고, 난간도 보강했다.

김생기 시장은 시장은 준공식에서 “영파동 광역매립장 체육공원에 제2야구장이 들어섬에 따라 정읍시 야구동호인들의 숙원을 해소함은 물론 야구동호인들이 보다 더 운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며 “지속적인 운동과 이를 통한 체력증진 및 회원 간 화합과 우의증진이 앞으로 정읍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는 매립이 완료된 영파동 광역쓰레기매립장에 친환경적인 체육시설을 설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력증진의 장소로 제공해오고 있다.

한편 준공식 당일에는 이를 기념하는 제6회 단종미인기 야구대회도 열렸다.

현재 정읍시 사회인 야구동호인은 16개 팀에 550명으로 팀과 회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지난 2011년과 2012년에는 이평중학교와 신태인 인상 고등학교에 야구부가 창단됐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s@



고추장 100상자 소외이웃 찾아갑니다

순창군은 사조(주)가 최근 기탁한 고추장 100상자를 시설단체와 저소득층 주민에게 제공했다. 군은 지난 2008년부터 순창군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해 기초푸드뱅크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kwangju.co.kr

# “야영객 음식 냉장 보관해 드려요”

### 지리산국립공원, 휴가철 맞춤형 서비스

지리산국립공원 북부사무소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야영객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야영객이 가져온 음식물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고를 비치

하고 남은 음식물은 기부하는 푸드뱅크를 운영한다.

무분별한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컵, 식판 등 식기류를 무료로 대여하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야영장에서 다채로운 문화행사도 열린다.

8월 초 달궁 자동차야영장에서는 국립민속국악원과 함께하는 한여름밤의 국악공연을 펼친다.

지리산의 자연과 문화를 배우는 ‘마한의 전설이 깃든 달궁체험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지리산 뱀사골, 달궁, 덕동야영장은 계곡과 인접해 있어 여름 피서객에게 큰 인기를 끌면서 연간 5만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

/남원=백선기자 bs8787@kwangju.co.kr

# 군산 세계 철새축제 프로그램 전국 공모

군산시가 '2013 군산세계철새축제'의 프로그램에 대해 전국 공모전을 진행한다. 접수는 다음달 4일까지 21일간이다.

분야는 주제, 체험, 전시, 경연, 기타 등 5개이며, 내용은 ▲철새와 생태의 이미지를 구체화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군산 역사와 문화, 전통 등 지역 특색이 나타나는 프로그램 등이

다. 접수는 군산시청(www.gunsan.go.kr) 및 철새조망대(www.gmbo.kr) 홈페이지를 방문해 ‘고시공고’ 게시란에서 공고문과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접수와 전자메일 접수(wildbird@korea.kr)로 참여하면 된다. /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nogusu@kwangju.co.kr



# 도교육청, 학교 건설분야 청렴문화 정착 토론회

전북도교육청이 건설단체와 학교 건설분야의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김승환 교육감은 16일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등 도내 건설단체와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협조 방안을 논의한다. 김 교육감은 불법 하도급 방지, 부조리 방지, 시설 공무원 청탁 및 부당

지시 신고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건설단체는 그간 전문공사 분리발주, 설계도면 및 내역서 누락사항 설계 변경, 주계약자 공동 도급 발주 확대, 2000만원 미만 공사의 지역 제한 입찰, 설계용역의 분리 발주 등을 요청했다.

/전주=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nogusu@kwangju.co.kr

# 전주시, 26일까지 대중교통 안전 점검

전주시 대중교통과는 5일부터 26일까지 3주간동안 휴가철을 맞이하여 쾌적한 대중교통이용과 안전운행을 위해 시내버스 일제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대중교통과 운수지도팀을 포함한 2개조 4명의 점검반을 편성, 버스업체를 직접 방문해 실시

하며, 안전관리실때 점검과 회차지 및 주요 승강장에서의 무정차, 조연발 행위 등을 단속하고 시내버스에 직접 탑승해 버스 정비 및 청결 상태 등을 살피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전주=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nogusu@kwangju.co.kr

# 순창군, 백산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순창군이 강천산국립공원과 고추장 민속마을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백산 사거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했다.

회전교차로 설치에 국비 1억4000만원과 군비 1억4000만원 등 총사업비 2억8000만원을 들여 지난 3월 도

로교통공단과 경찰서 등 전문기관과 협의를 완료하고, 지난 4월 착공한 바 있다.

백산사거리는 평소 신호대기시간이 길어 신호위반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 부안군, 장미철 도로유지 관리·보수 활동

부안군이 지속되는 장마와 계절라성 집중호우로 인한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도로유지 관리와 보수 등 안전을 기하고 있다.

군은 15일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상황근무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2인 1조로 운영하는 상황근무를 통해 저수지와 방조제, 양수장, 용·배수로

등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순찰은 물론 피해 발생 시 상황전파 및 긴급조치를 추진하게 된다.

특히 15일부터 26일까지 12일 동안 지역 내 도로유지 관리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한다. 점검이 예상되는 도로 및 위험지구의 사전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부안=정재용기자 jji0681@